

11과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요1:14)

서론

1) 죄인 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가 없다.

롬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 구원을 위한 인간의 길과 노력은 헛된 것이다.

잠 14: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전 2: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3) 죄의 비참함 속에서 인간은 결국 절규할 수밖에 없다.

롬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기에 무능하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도, 의로도 되어질 수 없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본론

1.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1) 예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골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3)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성육신).

요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1)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 분리된 영적 사망이 왔고,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속박 아래에 살고 있다. 이 사탄은 죄를 갖고 끊임없이 인간을 참소하고, 인간 속에 있는 죄성으로 유혹하여 인간이 죄의 종으로 살도록 역사하고 있다.

엡2:1~2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일3:8a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히2:14b~15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2)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피를 흘려서 속죄해야 한다.

레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와 피가 없으시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피 흘림이기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릴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속죄하셔야 한다.

3) 성자 하나님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성육신).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2:6-7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4)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눅19: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막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십자가

결론

1)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딤후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2)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할 유일한 중보자가 대제사장이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히4:14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3) 예수님의 공생애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생애였다.

요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4)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라.

롬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